

# 광주 대표브랜드 김치 ‘무한변신’... ‘김치축제’ 성료

‘스타셰프 푸드쇼’ 등 문전성시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시상 배추김치 등 할인 판매 큰 호응 강 시장 “광주김치, 하나의 장르”



가족단위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지난 19일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린 ‘제31회 광주김치축제’에서 알타리 김치와 배추 김치 등을 시식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맛갈스러운 김치가 버무려진 ‘광주김치 축제’가 광주시청 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제31회 광주김치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축제는 이날까지 사흘동안 계속됐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시장,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박필순·심창욱·심철의·임미란·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김치는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안유성 대한민국 조리명장, 박수진 광주김치축제 위원장, 광주시 자매도시인 일본 센다이시 대표단, 외국인 유학생, 시민 등이 참석했다.

또 개막식은 올해 광주김치축제를 위해 특별 제작한 뮤지컬 ‘나의 첫 김치파티’와 김치댄스 ‘나는 김치입니다’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김장 패션의 시대 변천사를 선보인 김치 패션쇼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으며, 일본 센다이시 대표단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광주시가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적·기능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이 대회에서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김지미씨가 ‘산골 더덕을 품은 면역력 백김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김명희씨(강진)의 ‘담진만 물김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최정원씨(전주시)의 ‘청정채 김치’, 광주시장상은 이맹두씨(구미시)의 ‘배숙

김치’, 최은임씨(광주시)의 ‘자숙참복반지’ 등이다.

특히 관람객들의 문의가 쇄도했던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광주시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올해 김치축제 단연 최고 인기를 끈 대표 프로그램으로, 많은 언론매체에서 현장 취재하는 등 광주김치축제 콘텐츠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푸드쇼 첫날인 18일 오후 5시에는 ‘흑백요리사’에서 활약한 최현석·여경래 셰프가 김효숙 명인의 ‘돌산 갓김치’와 장경애 명인의 ‘대하 배추김치’를 활용해 각각 ‘갓김치 간장게장 리조또’,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을 선보였다.

푸드쇼 이튿날인 19일 오후 5시에는 정관삼님과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가 짝은 주명인의 ‘맨드라미 백김치’와 김인숙 명인의 ‘홍갓 꽃물 갓물김치’를 재해석해 각

각 ‘맨드라미 백김치 목밥’, ‘갓물김치 문어 냉파스타’를 요리했다.

올해 김치축제 ‘천인의 밥상’에서는 김치를 보관하는 용도였던 용기를 이용해 만든 향아리 통삼겹 바비큐, 김치치즈 삼겹말이, 당근김치타코, 보리열무 육회비빔밥, 목은지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6000원에서 1만6000원에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다화용기 13만개를 지원, 친환경 축제로 치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산지 배추가격이 크게 올라 김치축제장 판매 김치가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배추김치를 1kg에 8000원부터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또 갓김치, 썬박지, 파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밖에도 △우주최광(光) 김치체험 △김장 오락실 △글로벌 김치라운지 △광주 김치 팝업스토어 △김치판매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 시장은 “광주김치는 하나의 장르로, 광주의 대표브랜드다”며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흑백요리사’가 출연하는 푸드쇼 등 김치의 무한변신을 만나볼 수 있는 즐거운 축제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lbo.com

## 광주시 공직자들, 시정 홍보 쇼츠 영상 제작 ‘눈길’

‘셀프홍보어워드’ 내부 공모전 진행 18개 작품, 시민광장 채널에 공개

자신의 아이디어로 시정 영상을 직접 제작해 홍보에 나선 광주시 공직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광주시 종합홍보플랫폼 ‘모두의광주’를 통해 직원들이 만든 홍보 쇼츠 영상을 선보인다. 내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18개의 작품이 ‘모두의광주’ 시민광장 채널에 공개된다.

광주시는 ‘제 홍보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주제로 지난 8월부터 두달여 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셀프홍보어워드’ 기획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는 최근 홍보 트렌드가 온라인 쇼츠영상인 만큼 시민들이 시정을 보다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친근한 홍보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요소를 가미해 참여 부담을 줄였다.

광주시는 ‘모두의광주’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과 공감(좋아요)을 가장 많이 받은 영상 2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은 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빛튜브’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00% 시민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셀프홍보어워드, 1위를 맞춰라’라는 시민 대상 이벤트도 함께 연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이다. 1등을 맞춘 50명의 응모자에게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민 54% “집 근처 소각장 설치 수용 가능”

광주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자신의 집 근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시민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근 광주 거주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54.4%가 수용 가능, 45.6%가 수용 불가 의견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광주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205명 중 찬성 36.6%·반대 48.8%)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답변 비율이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소각 시설 설치에 따른 우려로는 대기 오염(33.4%)과 건강 위험(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대응책 마련(42.9%)과 주변 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29.3%)이 필

요하다고 응답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같은 설치 필요성 홍보(45.4%)를 통한 꾸준한 인식 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각 시설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 지원(33.4%), 금전적 보상지원(24%) 등이다.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분리배출과 재활용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46.7%),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시민의식 교육(31.9%)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광주시는 상무 소각장 폐쇄 이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없었으나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다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 세계정치학회 ‘김대중상’ 제정...김 지사 “환영”

내년 7월 서울 행사서 첫 수여 “탄생 100주년...민주·평화 발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세계정치학회(IPSA)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대중상’을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유네스코 후원에 설립된 정치학회 연합체로, 매 2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김대중상’은 2025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정치학회의 세계대회(World

Congress)에서 세계 평화, 민주주의, 인권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세계적 학자에게 처음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학회의 독립적인 자체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세기 한국 정치의 상징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며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특히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인권과 평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삶과 철학은 현대 정치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교훈이 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운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상’이 제정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1월5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와 생명의 길’을 주제로 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지현 기자

## 국내외 노화 석학들, ‘광주다움 통합돌봄’ 주목

국제노화심포지엄 전남대서 개최 의료·요양·기술 돌봄 연계 등 논의

국내·외 노화 연구자들이 광주에 모여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대 의과대학 학동캠퍼스에서 열린 제18차 국제노화심포지엄에서 한국 대표 돌봄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해

일본·미국 등 돌봄 사례를 통해 의료·요양·기술 돌봄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돌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주제로 한 이날 심포지엄은 살 곳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다양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사례가 발표됐다.

또 △치매 조기진단 및 예방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케어 △노인질환 최신치료법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전문가 세션을 통해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세션에서는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사례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돌봄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틈새사업을 신설한 광주의 사례를 접한 후 “진료-검사-처방으로 이어지는 일률적인 의료적 접근과 의료가 배제된 요양서비스가 각각 이뤄지면 안 된다”며 “의료적 치료와 생활 지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병하 기자

##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 소개 “글로벌 입지 강화”

전남산 김이 세계적인 미식 강국인 프랑스 잡지에 소개되는 등 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글로벌 입지 강화가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프랑스 독자를 대상으로 문화, 패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K

-SOCIETY 매거진 21호에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을 비롯한 해조류 식품과 전남 김 수출업체 해산(대표 최치원)을 소개했다.

매거진은 완도에서 오마이김(OMG - Oh!MyGim) 브랜드를 수출하는 해산의

제품과 전 세계를 누비며 해조류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최치원 대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한국의 생일 전통인 미역국 섭취와 출산 후 여성이 해조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문화를 소개하며, 해조가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미 고래도 회복을 위해 해조류를 먹는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